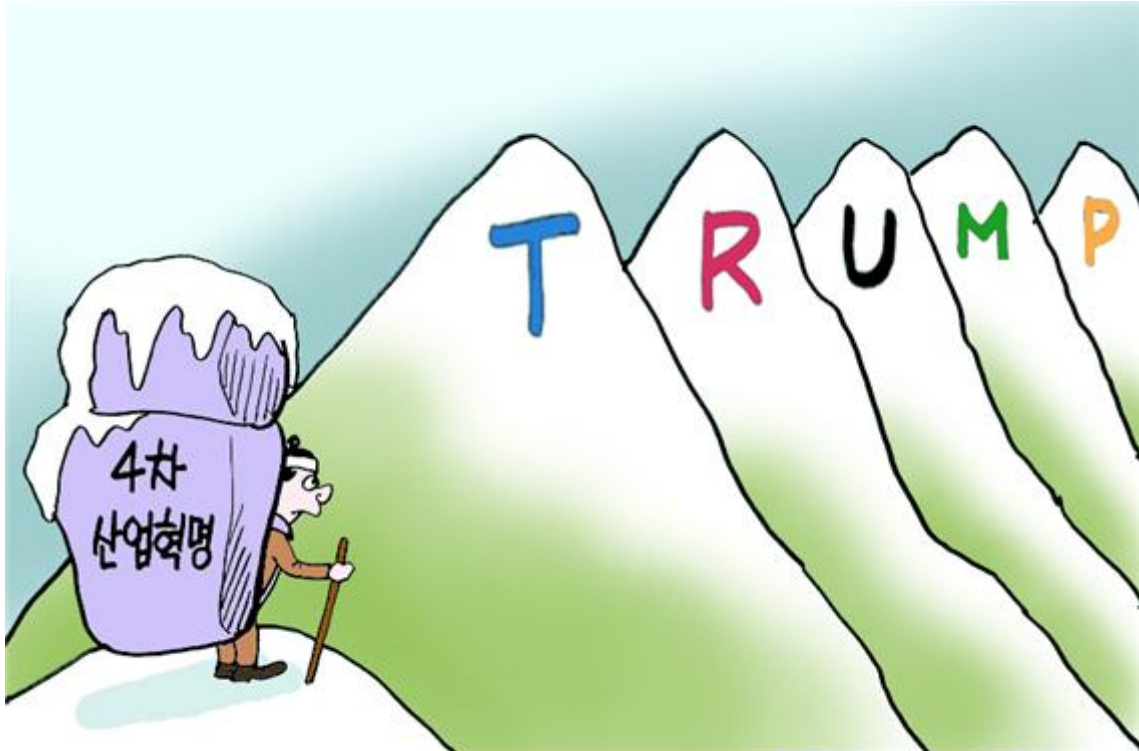


트럼프 시대가 던지는 키워드



▲ /삽화=양만금 화백

[전광우·손현덕의 통쾌한 경제-2] 오늘날 우리는 인류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세기 이후 3차에 걸친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4차 산업혁명은 고용환경과 산업지형의 급변을 예고합니다. 과거 관행과 제도의 창조적 파괴가 생존을 위한 선택 아닌 필수라는 경고음까지 들리지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기존 국제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시대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인지, 기억하기 쉽게 ‘TRUMP’라는 이름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다섯 단어에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T는 Tough(터프), 강력한 리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쇼크로 전 세계는 ‘스트롱맨’ 시대를 맞았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외치는 트럼프, 등소평 이후 최강 파워의 시진핑, 러시아의 터프가이 푸틴, 경제부흥과 군사강국을 넘보는 아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리더십이 대세라는 얘기죠. 국수(國粹)주의 확산은 외교안보와 경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면서 국가 간 이해상충 리스크는 커집니다. 국내 사드배치 관련한 美·中 간 힘겨루기는 서막에 불과할지 모르지요.

R은 Rage(분노)의 시대가 어떨지요. 하버드대학 연기금 CEO를 지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분노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은 ‘비이성적 판단’이라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나 트럼프 당선 등은 사회적 불만과 중산층 분노의 표출이지요. 지구촌을 휩쓰는 분노시대에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 아니라 충동적이라는 게 문제란 말

입니다. 성난 민심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그만큼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들립니다.

U는 Uncertainty(불확실성)의 시대로 읽힙니다.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소지가 크지요. 시장변동성이란 신체의 맥박과 비슷해서 너무 낮아도 탈이지만, 너무 높으면 투자자 불안과 불신을 키웁니다. 미국의 경기 활성화로 주가는 뛰어도 채권이나 외환시장 사정은 다릅니다. 금리인상 추세의 확산이 슈퍼달러를 부추기면서 돈 풀겠다는 트럼프와 돈줄 죄겠다는 엘런(Fed의장)의 충돌로 시장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쉽지 않겠네요.

M은 Money(돈), 실용주의 노선이 어떨까요.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는 트럼프 대통령을 Commander-in-Chief(최고사령관) 대신 Monetizer-in-Chief(최고현금화책임자)로 지칭할 정도로 '트럼프시대의 길은 돈'으로 통합합니다. 극단적 실리주의에 빚대어 하는 얘기죠. 정책 초점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는 말도 됩니다. 법인세인하와 규제완화에다가 해외 기업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요.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도 벌써 미국 내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으니 단기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P는 Protectionism(보호주의), 신고립주의 시대를 뜻합니다. 2차 대전이후 지속되어온 글로벌리즘(세계화) 기조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트럼프노믹스의 반 세계화적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기존 국제 무역투자의 틀을 크게 흔들 전망이고요. 자유무역협정 폐기나 수정으로 세계경제의 체제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로 협정 체결 5주년을 맞은 한미FTA의 개정 압박도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힘 키워야 살아남는 각자도생 시대'를 맞았다는 얘기인데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